

항공유 유류할증료 최고치... 항공사들 감편·긴축경영 돌입

국제선 유류할증료 첫 33단계
내달 발권분 국제·국내선 급등
환율 상승에 비용 부담 가중
수요 둔화 우려에 실적 비상
무급휴직·정부지원 등 검토

국제선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이 되는 항공유 가격이 지난 2016년 현행 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최고 단계인 33단계에 진입했다. 항공사들이 5월 발권분 유류할증료를 큰 폭으로 올렸지만 환율 상승과 수요 둔화 우려까지 겹치며 비용 부담을 상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21일 한국투자증권과 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33단계가 적용된다. 33단계는 항공유 가격 배럴당 198달러에 해당하지만, 실제 5월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 기간(3월 16일~4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511.21센트(배럴당 214.71달러)로 기준선을 크게 웃돌았다. 전쟁 발발 이전인 지난 3월 6단계였던 유류할증료가 불과 두 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것이다.

국내 항공사들은 이에 맞춰 5월 발권 기준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일제히 큰 폭으로 인상했다. 전반적인 인상률은 70~90%대에 집중됐고 일부 구간은 100%를 넘겼다. 전에는 대부분 구간에서 80%



대한항공 B787-10.

대 후반 인상률을 보였고,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도 70% 후반~80% 초반 수준으로 올렸다. 대한항공은 2000~4000마일 중거리 구간에서 100%를 넘는 인상률을 기록했고, 아시아나항공도 전 구간에서 80~90%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크게 뛰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이스타항공은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 3만4100원으로 책정했다. 4월 7700원보다 2만6400원 오른 수준이다. 티웨이항공도 88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을 했다.

문제는 유류할증료 인상만으로 수익성 악화를 막기 어렵다는 점이다. 항공권 가격 상승이 여행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환율 상승까지 겹치며 비용 부담이 더 커지고 있어서다. 최근 휴전 이후 국제유가가 다소 진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항공유 가격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만큼 전쟁이 끝나더라도 최소 2~3개월은 높은 수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항공사들은 이미 긴축 경영에 들어갔다. 대한항공은 4월부터 비상경영 체제

로 전환해 전사적인 비용 효율화에 나섰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재 운용 효율화와 함께 4~5월 창춘·하얼빈·프놈펜·엔지 노선 등에서 왕복 14회를 감편했다. 티웨이항공은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가며 인력 운영 조정에 착수했다. 제주항공은 5~6월 인천발 하노이·방콕·싱가포르 노선 등 국제선 110편을 줄였고, 진에어도 4월 일부 국제선 45편을 운항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도 지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국내 항공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항공사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형 항공사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배규한 동원과학기술대 항공모빌리티학부 교수는 "1갤런이 약 3.78리터에 불과한 만큼 대량의 항공유를 사용하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연료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유류할증료를 인상하더라도 비용 부담을 모두 상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할증료 급등은 결국 승객 이탈로 이어지고, 항공사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metro

유진그룹

글로벌 미디어 확대

美 싱클레어와 K-컬처 협력

유진그룹이 글로벌 미디어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낸다. 유진그룹의 미디어 중간지주사 유진이엔티는 미국 최대 지역 지상파 네트워크 기업인 '싱클레어 브로드캐스트 그룹'(Sinclair Broadcast Group·싱클레어)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K-컬처 콘텐츠 확산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싱클레어는 미국 내 86개 권역에서 185개 지상파 방송국을 운영하는 대형 미디어 그룹이다. 최근 국내 주요 방송·미디어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며 미국 내 K-콘텐츠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ATSC 3.0 기반 K-콘텐츠 전문 지상파 채널 'K-Channel 82'를 통해 양방향 서비스와 맞춤형 광고·쇼핑·투표 기능을 결합한 차세대 방송 환경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K-Channel 82'와 싱클레어의 지상파 방송망을 활용해 뉴스, 교육, 문화, 다큐멘터리, 정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한국 콘텐츠를 미국 시청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 제작을 추진하고, 채널 편성 및 콘텐츠 운영, 스튜디오·제작 협업, 신규 사업 모델 발굴 등 전방위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중소·스타트업에 GPU 264장 공급... AI 전환 지원

(그래픽처리장치)

중기부, 중소기업·스타트업 200장
6월부터 NHN클라우드 통해 지원
제조 AX·AI 스타트업 상용화 뒷받침

정부가 중소기업, 창업기업에 그래픽 처리장치(GPU) 264장을 공급해 인공지능(AI) 전환을 돕는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국가 AI 프로젝트'를 통해 중기부에 B200 모델 GPU 264장을 배정했다.

중기부는 국가 AI 프로젝트에 ▲중소제조 특화 멀티 AI 에이전트 개발(R&D) 사업 ▲혁신 AI 스타트업(창업기업) 전략 기술 상용화 및 인공지능 전환(AX) 가속 프로젝트(초격차 스타트업) 등 2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확보한 GPU 가운데 64장은 중소기업에, 200장은 스타트업에 각각 배정한다. 중기부는 GPU 자원을 AI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중기부가 시행 예정인 2개 과제는 공

모 및 선정평가를 거쳐 올해 6월부터 지원한다. 선정 기업들은 민간 데이터센터(NHN클라우드)와 연계해 센터가 보유한 GPU를 원격으로 이용하는 서비스(클라우드 방식)를 연말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AI 에이전트는 기술기업·제조기업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중소제조 현장의 공정·품질 최적화를 위한 기술개발부터 현장 적용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해당 과제를 통해 기술기업·제조기업 컨소시엄은 제조 공정에 대한 AI 학습, 데이

터 확보 및 기술 실증화를 포함한 AI 에이전트 기술 개발에 GPU를 활용할 수 있다.

초격차 스타트업에 배정된 200장은 ▲대학·출연연 전문역량과 창업기업 기술을 합친 전략 AI 개발 ▲기업 간 협업을 통해 특정 산업 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AI 솔루션 개발에 각 85장씩 지원한다. 과제 내 '모두의 창업'에는 30장을 투입해 예비 창업가의 GPU 확보 문제를 해소한다.

/김승호 기자 bada@

LS일렉트릭, 데이터센터 훈풍에 최대 실적

북미 매출 80% 늘며 ESS·변압기 성장

LS일렉트릭이 글로벌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LS일렉트릭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 1조 3766억원, 영업이익 1266억원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3%, 영업이익은 45% 증가한 수치다.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설비 투자 증가,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글로벌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특히 북미 사업이 성장을 이끌었다. 1분기 북미 매출은 약 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0% 증가하며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북미에서는 데이터센터 마이크로그리드 고객을 대상으로 직류(DC) 제품 수요도 이뤄지며 직류 솔루션 시장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도 넓혔다.

LS일렉트릭은 초고압직류송전(HVDC), 저압직류배전(LVDC) 등 직류 솔루션 역량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고전력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직류 전력망은 전력 변환 단계를 줄여 손실을 낮출 수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세안 사업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저압 전력기기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과 전력 인프라 투자가 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매출이 확대됐다.

/원관희 기자 wkh@

삼양그룹, AI·전기차용 스페셜티 소재 공략

AI 서버용 고내열·모빌리티 선배

삼양그룹이 고충격 실리콘 폴리카보네이트(Si-PC), 인공지능(AI) 서버용 고내열 소재, 전기차 모터코어용 접착제 등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IT와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차세대 산업용 소재 경쟁력을 부각하며 고객사 확대에 힘을 쏟는다는 전략이다.

삼양그룹은 21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차이나플러스 2026(Chinaplas 2026)'에 참가해 화학계열사인 삼양사와 삼양이노텍의 스페셜티 소재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차이나플러스는 플라스틱·고무 소재와 가공기술의 최신 흐름을 소개하는 산



'차이나플러스' 삼양그룹 부스 전경. /삼양그룹

업 전시회다. 올해는 전 세계 170여개 국가에서 5000여개 글로벌 기업이 참가한다. 삼양그룹은 고객 접점을 넓히고 업계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4년 연속 이 전시회에 참가한다.

/원관희 기자

기정원

딥테크 배심원 모집

AI·바이오 등 100명 선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5월8일까지 생태계혁신형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의 민간전문가 배심원단을 모집한다.

21일 기정원에 따르면 민간전문가 배심원단은 DCP 평가 과정에 참여해 대면평가 운영 전반을 참관하고 참고 의견을 제시하는 민간 참여 제도다. 인공지능·디지털, 제조·로봇, 제약·바이오, 첨단소재·부품, 탄소·에너지 등 전략분야별 총 10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기업 관계자, 투자자(벤처 투자사·창업기획사 등), 기술 전문가, 관련 분야 전공자 등 창업·벤처 분야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적격 대상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심원단을 최종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과 기정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신 기정원장은 "DCP는 생태계의 변화를 이끌 핵심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사업"이라며 "민간전문가 배심원단 운영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